

2017 서울시 사회복지 9급 국어 해설

제공 : 유 두 선 교수

1. (정답풀이) ④ 땀을 들이다 :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. (오답풀이) ① 밟다 :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. ② 흰 눈으로 보다 :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 = 백안시 ③ 허방 짚다 :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.

정답 ④

2. (정답풀이) ① ‘비가 오는’은 성분 생략이 없고 뒤에 오는 ‘소리’와 같은 의미이므로 동격관형절이다. (오답풀이) ② ‘양복을 맞추다’, ‘양복을’(목적어)이 생략된 관계 관형절 ③ ‘지갑을 줍다’ ‘지갑을’(목적어)이 생략된 관계관형절 ④ ‘사람을 만났다’ ‘사람을’(목적어)이 생략된 관계관형절

정답 ①

3. ③ ‘ㅂ’은 양순음(+양순음) ‘ㄱ’은 연구개음(-치조음)
① ‘ㄱ’은 연구개음(-경구개음), ‘ㄹ’은 치조음(-후음)
② ‘ㅁ’은 양순음(-경구개음) ‘ㅂ’은 양순음(-후음)
④ ‘ㅎ’은 후음(+후음) ‘ㄱ’은 연구개음(+연구개음)

정답 ③

4. (정답풀이) ④ ‘ㅎ’은 발음되지 않고 ‘ㄴ’은 뒤로 연음되기 때문에 [아는]으로 발음한다.

정답 ④

5. (정답풀이) ② 사물을 나열한 뒤에 쓰이는 ‘들’은 의존명사로 띄어쓴다.
(오답풀이) ① 체언 뒤에서 ‘만큼’은 조사로 붙여 쓴다.
③ ‘만’ 시간 개념으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.
④ ‘-는지’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.

정답 ②

6. (정답풀이) ① 변명 (辯 : 땅을 변, 明 : 밝을 명)
(오답풀이) ② 인식 (認 : 알 인, 識 : 알 식)

- ③ 대처 (對 : 대답할 대, 處 : 살 처)
- ④ 선양 (宣 : 배울 선, 揚 : 오를 양)

정답 ①

7. (정답풀이) •의 소멸, 원순모음화, 어의전성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성에 해당한다.

정답 ②

8. (정답풀이) ② 무람없다 : 예의를 지키지 않으며 삼가고 조심하는 것이 없다.

정답 ②

9. (정답풀이) ① 읽어 보거라(시행 보조동사), 더운가 보다(추측 보조 형용사)

(오답풀이) ② 깨(서) 먹었다(본동사), 끓여(서), 먹었다(본동사)

③ 가져다(가), 드리렴(본동사), 거들어 드린다(봉사 보조동사)

④ 이것 말(본동사), 떨어지고 말았다(부정 보조동사)

정답 ①

10. 정답풀이 ① 쉽표를 볼 때 '낮익은'은 '동생'을 수식한다.

정답 ①

11. (정답풀이) ③ '쓰+이+어'의 축약 형태로 '씩어'는 바른표기

(오답풀이) ① ▮불규칙은 '돕다, 곱다'를 제외하고는 모두 '우'로 변한다. '가까웠다'가 바른 표기 ② '서'라는 어미는 없다. 되+어서->'돼서'로 표기해야 한다. ④ '생각하건대'에서 안울림 소리 'ㄱ'뒤에서 '하'가 탈락한다. '생각하건대'가 바른 표기다.

정답 ③

12. (정답풀이) ② '토끼타령'을 현대어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. 토끼가 쫓기는 정황이므로 혼비백산이 정답이다. 혼비백산은 혼백이 어지러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몹시 놀라 넋을 잃음을 이르는 말

(오답풀이) ① 소극침주 : 조그만 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 배가 가라앉는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게을리 하면 큰 재앙이 닥치게 됨을 이르는 말

③ 망양보뢰 : 양 잃고 난 후에 우리를 고침 ④ 간명범의 : 명분을 거스르고 의리를 어기는 행위

정답 ②

13. (정답풀이) ① ‘ㅅ’와 ‘ㄱ’는 현대국어에 와서 단모음이 되었다. 석보상절이 나올 때와는 거리가 멀다.

(해설) 태자가 도리를 이루시어 자기가 자비하리라 하시나니

(오답풀이) ② 합용병서는 중세국어부터 근대까지 쓰였다.

③ ‘가’주격은 임란 후에 나왔다.

④ 모음조화로 중세 국어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
정답 ①

14. (정답풀이) ‘가시리’는 이별의 한을 노래한 작품이다. 김소월의 ‘진달래꽃’도 역시 이별의 한을 노래하고 있다.

(오답풀이) ① 님의 침묵은 구도정신

② 남으로 창을 내겠소 는 전원의 삶

③ 국화 옆에서 는 중년 여인의 원숙미, 생명의 경외감

정답 ④

15. (정답풀이) ③ 흥길동이 도적과 함께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.

(오답풀이) ① 흐느끼며 아뢰고 있음

② 천생의 몸으로 태어남을 한탄함

④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였음

정답 ③

16. (정답풀이) ② 경제의 글로벌화로 다양성이 증대된 것이 아니고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. 즉, 다양성 보존과 거리가 있다는 내용이다.

정답 ②

17. (정답풀이) ③ 주어진 글을 청각을 시각화한 공감각적 표현이다. 그러나 ③에는 냉온감각의 대조만이 있다.

(오답풀이) ① 후각의 시각화 ② 시각의 청각화 ④ 청각의 시각화

정답 ③

18. (정답풀이) ㉠, ㉡, ㉢은 정보 통신 기술이 갖고 오는 변화와 관계 있는 말이다. 밑줄친 내용은 들어갈지 말지는 인간이 결정한다고 했으니 ㉣의 '선택'이 가장 적당하다.

정답 ④

19. (정답풀이) ③ 상승 억양은 비판의 뜻을 나타낸다고 했다.

(오답풀이)

① 정확한 뜻을 전달할 수 있다.

② 어순은 억양과 관계 없다.

④ 장단은 억양과 관계 없다.

정답 ③

20. (정답풀이) ④ 풍유법, 대조법이 쓰이고 있다 풍유법은 비유법에 해당한다.

(오답풀이) ① 정몽주의 어머니로 알려져 있으나 정몽주 어머니는 이방원이 태어나기 전에 세상을 떠났으므로 연대가 맞지 않는다. ② 까마귀를 부정적 이미지로 보고 있다. ③ '새올세라'는 '샘낼까 두렵다'는 뜻이다.

정답 ④

<해설과 총평>

2017년 사회복지직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되었다. 현대문법, 고전문법 어휘가 11문항 독해가 3문항 한자와 한자성어가 2문항이 출제되었다. 고전작품과 고전문법 때문에 어렵게 느껴졌을 것이다. 문법과 어휘는 모든영역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. 일반적으로 서울시 문제는 독해가 잘 출제되지 않는데 이번에는 3문항이 나왔다. 전 영역에서 다양하게 출제된 것이다. 2017년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되었는데 정말 어렵게 출제되었다. 나머지 시험도 기출문제나 풀어보면서 대충 대응하려고 하지 말고 꼭 2~3문제 신경향 문제가 출제된다는 것을 잊지말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.